

농어촌공사와 마찰 ... 땅값 산정도 못해

J프로젝트 왜 늦어지나

경기침체로 투자유치 난항 '표류'

서남해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이하 J프로젝트) 사업은 애초 지난 2008년 말~2009년 초 착공 예정이었지만 F1 서킷이 들어선 삼포지구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사실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J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생산유발 19조원, 고용유발 22만 8000명, 소득유발 3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 7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란 청사진도 퇴색되고 있다.

◇땅값 산정·지급도 못해=삼호지구와 구성지구는 땅값 감정평가가 늦어지거나 대금 납부가 미뤄져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삼호지구는 영암군 삼호읍 일대 866만1000㎡(262만평)에 18홀 기준으로 골프장 4.5개(81홀·321만1000㎡) 및 대규모 스포츠·레저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한 개발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간척지 주인인 농어촌공사와 사업 시행사 간 땅값 감정평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제값을 받고 팔려는 측과 저렴하게 구입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측의 입장차가 커

재감정 절차를 받고 있다. 사업시행사 측은 2만원대를 주장하고, 농어촌공사는 5만원대를 요구하고 있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구성지구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 2187만㎡(482만평)에 8950억원을 투자해 관광·레저·문화·주거·산업·교육 등 기능을 갖춘 자족형 기업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이곳도 감정평가 작업이 더디 지난해 말 법원 조정으로 땅값이 1020억원으로 결정됐지만 올해 초 계약금 102억원만 납부된 상태다. 오는 9월말까지 잔금 918억원을 농어촌공사에 줘야 하지만 사업시행사 측에서 자금압박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행사측은 당초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발급받을 계획이었으나 보증료로만 168억원이 지급해야 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전남개발공사가 보증을 서거나 매입하게 될 간척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 등이 협의 중이지만 연내에 첫 삽을 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정다툼에 투자금 축소=부동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도



지구와 삼포지구도 법정다툼으로 사업 시행을 장담할 수 없거나 투자금이 대폭 축소됐다.

부동지구는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일대 1418만㎡(428만9500평)에 골프장·위터파크·마리나·승마클럽 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지난 1월 부동지구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농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KDI에 의뢰한 부동지구 사업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 비율(B/C)이 1.0 이하로 사업성이 낮다'라는 결과와 나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셈이다.

현재 부동지구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인 문화체육관광공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최근 중국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은 삼포지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삼포지구는 영암군 삼호읍

J프로젝트 추진 일정

- ▲2003년 : 프로젝트 구상 및 검토작업 시작
- ▲2004년 7월 28일 : 대통령 서남권 대형프로젝트 정부지원 천명
- ▲2005년 1월 13일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서남해안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구체화
- ▲2005년 8월 25일 : 제3차기업도시위원회서 기업도시 선정
- ▲2006년1~12월 : 개발계획수립 수립 및 타당성조사
- ▲2007년 6월 : 컨소시엄별 개발계획 통합
- ▲2007년 7~12월 : 개발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
- ▲2008년 :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 ▲2009년 10월 : 삼호지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10년 1월 : 구성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5월 : 사업계획 변경(송천·소송지구 사업추진 유보)
- 10월 : 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11년 4월 : 부동지구 KDI 사업타당성 재검증 용역 수행
- 8월 삼호지구 실시계획 승인신청 중앙부처 협의 완료
- ▲2011년 11월 8일 : 기업도시 동축진입도로 예타대상 사업신청
- ▲2011년 11월14일 :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 중앙부처 협의 완료
- ▲2012년 1월 : 부동지구 개발계획 승인 신청 반려
- 구성지구 양수 계약금 지급
- 4월 부동지구 행정심판·소송 개시

일대 430만㎡(130만평)에 F1 경주장을 비롯해 1만명이 상주할 수 있는 복합레저스포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전남개발공사는 지난 7월 중국 투자기업과 삼포지구 2단계(241만5000㎡·74만평) 개발사업에 부지 조성비 2500억 원을 우선 투자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

다. 하지만 중국 투자자의 투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4분의 1에 불과해 투자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J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접촉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투자 유치가 힘든 상태다"고 설명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폴 세잔느 작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1895~1900)

새로운 미술 향한 끝없는 성찰

작품 속에 시대의 모든 것 담아

① 세잔느의 회의(懷疑)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메를로퐁티는 유명한 회화론 '세잔느의 회의(懷疑)'에서 회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하나의 정물화를 위해 100번의 작업시간을 필요로 했고, 하나의 초상화를 위해 모델을 150번이나 앉혀놓았다. 우리가 그의 작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세잔느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론이요, 그에 대한 접근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임제주의의 이론을 기초하고 흔히 현대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잔느는 캔버스 앞에 서서 그 천부적인 작업에도 늘 회의(懷疑)하고 그러고도 다시 한번 질문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마음 편하게 감상하고 있는 세잔느의 '사과와 오렌지'를 그린 정물'그림이, '생 빅토와르산의 정경'은 화가가 일상적인 행복을 유보한 채 숭한 나날들을 새로운 미술의 방법에 대한 성찰로 일관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우리가 고전이라 분류하고, 명작의 반열에 들어선 작품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분명하게 담아냈다. 미술은 어쩌면 '인간이 세계를 보는' 변화의 역사였으며, 그림은 늘 그 시대에 무엇을 보여줄 것이

가를 가장 첨예하게 고심했다. 그래서 그림에는 역사도, 혁명도, 권력도, 정치도, 사랑도, 사탕도, 고독도, 번민도 녹아있는 것이다. 미술을 통해서 시대를, 삶을 들여다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생활사, 문화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현대미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복잡하고 다단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교하고 유량적인 현대사회를 '담론'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통해 시대정신을 거울처럼 반영해주는 비엔날레라는 미술형식으로 마찬가지다. 작가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실제 존재하는 현상세계를 적나라하게 혹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작품을 통해 시도하는 예술적 소통은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작가들이 미술을 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생각' 역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매화 시대와 작가를 오가면서 흐르는 '그림 생각'이 독자들에게 자신을 되비추어 보는 특별한 여정의 매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김은영은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및 조선대 대학원 미학미술사 박사, 전 광주일보 기자,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역임

빛日만평

- 김중두



걱정스럽다

정준길, 택시서 통화 시인

택시기사 '안 협박' 증언에 종전 주장 바뀐 "내가 착각"

'안철수 대선 불출마 협박'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대섭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자신의 택시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한 택시기사 이모씨는 12일 "정 전 위원을 태운 것을 확인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전 위원은 금대섭 변호사와의 통화가 택시에서 이뤄졌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씨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정채공작전상조사특위'와 시도한 공개 전화통화 등을 통해 "그때는 몰랐으

나 언론보도를 보기도 했고 '나 정준길인데'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 안철수씨 이야기를 계속해서 확실히 기억난다"며 "목적지를 물을 때 봤던 모습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 전 위원) 모습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화 중에 (정 전 위원) 택시를 타서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쭉'이라고만 했고, 요즘 세간에 이슈가 되는 안철수씨, 안 원장, 대선 이야기가 나와 풍긋이 안 들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승객이) '안 원장에게 대선 출마하지 말라고 해라. 대선 나 오면 죽는다'고 말했다"며 "(안 원장이) 최근까지 음대출신 30대 여성을

사건 것과 뇌물사건을 우리가 조사해서 알고 있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이씨의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 확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 전 위원이 이날 당측에 당시 통화 정황에 착각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당시 나를 태웠다는 택시기사 이씨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그의 말이 맞다면 내가 착각한 것 같다"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엉겁결에 승용차를 직접 몰고 출근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리 받는 건강검진이 최고의 약입니다

